중문관광단지 조경수?… 결국은 야자수

한국관광공사, 1단계 개발지 워싱턴 야자수 식재
지난 8월 '안전 위협' 이유 단지내 280여그루 제거
종려나무 등 대체수종 포기… "미관상 가치 덜해"

안전을 이유로 중문관광단지 도로변에 있던 워싱턴 야자수 280여 그루를 베어낸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이하 KTO 제주지사)가 도로 워싱턴 야자수를 심기로 했다. KTO 제주지사는 지난 7월 워싱턴 야자수 제거 계획을 맨처음 발표할 당시 '워싱톤 야자수 대신 카나리아 야자수나 종려나무를 심겠다'고 했지만 3개월 만에 말을 뒤집었다.

14일 KTO 제주지사에 따르면 중문관광단지 1단계 개발 지역(단지내 서부지역)에 높이 3~4m 짜리 어린 워싱턴 야자수 230그루를 심는 내용의 식재공사 입찰이 이날 시작됐다. 공사금액은 1억5620만원이다.

앞서 KTO 제주지사는 1단계 개발지역에 있던 워싱톤 야자수 280여 그루를 지난 8월 모두 제거했다. 사라진 야자수들은 1982년 심어진 것으로 그동안 남국의 정취를 물씬 풍기는 단지의 이색 풍경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 야자수들은 심어진 지 오래되다보니 강풍에 취약한 문제를 드러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계속된 한파와 강풍의 영향으로 야자수 상당수의 상단부가 절단되는 등 훼손됐고, 지난해 태풍 솔릭과 콩레이 때는 100여 그루가 도로로 쓰러지거나 부러졌다.

KTO 제주지사는 워싱턴 야자수를 그대로 두면 또 강풍에 꺾여 도로를 지나는 차량이나 관광객을 덮칠 우려가 있어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밑동만 남아 있는 워싱턴 야자수.

베어낸 워싱턴 야자수를 대체할 수종으로는 당초 카나리아 야자수나 종려나무가 검토됐었다. 이들 수종은 워싱턴 야자수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크기는 작아 강풍에 의해 꺾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 따르면 통상 종려나무는 3~6m까지, 카나리아 야자수는 10~20m까지 자란다. 반면 워싱턴 야자수는 25~30m까지 자란다.

KTO 제주지사 관계자는 다시 워싱턴 야자수를 심는 이유에 대해 "종려나무와 카나리아 야자수는 잎사귀가 도로 양옆으로 뻗어나가 자칫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미관상 가치도 워싱턴 야자수보다 덜 하다"면서 "서귀포시, 단지 입주업체 등과 가진 자문회의에서도 워싱턴 야자수를 다시 심어 단지의 이국적 풍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새로 심은 워싱턴 야자수라도 다 자랄 시기가 되면 이번 처럼 다시 안전 문제에 놓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때 가서 야자수를 베어내야 한다

밑동 처리 문제도 만만치 않다. 현재 단지에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워싱턴 야자수의 밑동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야자수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다보니 밑동까지 다 제거하려면 도로를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제거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외여행이 보편화 된 마당에 관광객들이 이국적 풍경을 느끼려고 중문단지를 찾는다는 발상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미적 가치보다는 공기 정화, 햇빛 차단 등 가로수의 기능적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고유정 손 부위 상처 3곳 공방

전남편 살해사건 5차 공판
법의학자 "흉기 휘두르다 생긴 가해흔으로 추정돼"
변호인 "피해자 들고 있는 흉기를 뺏다 생긴 방어흔"

14일 5차공판에 출석하는 고유정(앞쪽)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이상국기자

졸피뎀·혈흔에 이어 이번엔 고유정의 몸에 생긴 상처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씨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고씨 몸에 난 상처에 대한 증거능력을 따져보기 위한 자리로 이뤄졌다. 증인으로는 고씨의 상처를 감정한 강현욱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과 교수와 범행 직후 고씨의 오른손을 치료한 제주시 소재 병원장 A씨가 출석했다.

강 교수는 앞서 지난 6월 고씨가 자신의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서 법원이 감정을 맡긴 인물이다.

이날 쟁점은 고씨의 오른쪽 손날 부위에 난 3개의 절창에서 비롯됐다. 검찰 측은 이 상처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난 '가해흔'이라고 한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난 '방어흔'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직접 흉기를 휘두르는 동작을 재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오른쪽 손날에 난 3개의 상처가 새끼손가락, 손바닥 중간 지점, 손목 가까운 지점에 평행하게 나타난 것은 가해흔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며 "통상적으로 칼끝이 피해자의 뼈와 부딪히면 이러한 평행적 상처가 발생한다. 만약 타인에 의해 난 상처라면 이를 피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곡선형태의 상처가 난다"고 설명했다.

왼쪽 손과 팔목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이전에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성폭행하기 위해 흉기로 닭이 모이를 쪼 듯 칼끝으로 고씨를 찌르면서 복부와 골반 등에 상처가 났다"며 "공격흔의 특징인 곡선형태의 상처가 나지 않은 것은 가까운 곳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고씨는 흉기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 날에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강 교수의 감정도 사건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단순히 상처 형태만 보고 감정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6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증인으로는 피해자 측 유족이 출석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복어취급음식점 점검

제주에서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음식점에서 복어 요리를 먹고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제주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시는 최근 복어 독 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취급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시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남은 음식과 복어 독 중독 의심 환자의 가검물 등에 대해 지난 11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제주시는 가검물 등에서 복어 독이 검출되면 해당 음식점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복어를 조리한 해당 음식점 업주가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시 외도동 한 음식점에서 복어내장탕을 먹은 8명 가운데 7명이 호흡곤란 및 마비 증세를 일으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취나물 수확하는 농촌 14일 제주시 애월읍 한 밭에서는 궂은날씨 속에서 취나물 수확작업이 한창이다. 이상국기자

"공론조사 특별위 구성 반대"

제2공항 찬성측 기자회견

제주 제2공항 찬성단체들이 제주도의회의 공론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대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구좌읍·우도면 추진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도민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끌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편의를 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의 숙원사업인 제2공항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지어 준다는데 도의회의 일탈된 소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이미 공론화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과정이 모두 공론화"라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70대 여성 SFTS 확진 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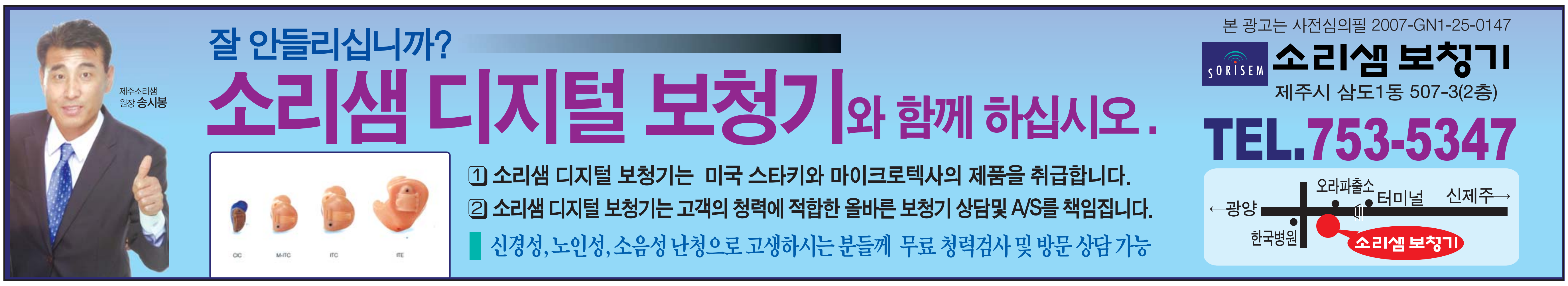
올해 제주서 9번째 환자

제주에서 올해 9번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제주시서부보건소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A(70·여)씨가 최근 고열과 오심증상이 발생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부보건소는 A씨가 배추 및 부추 등 텃밭에서 야외활동을 하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은 야생진드기의 일종인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4~11월이 주 활동시기이다.

잠복기(4~15일)를 거쳐 감기증상과 비슷하게 고열 및 근육통, 소화기 증상 등을 동반한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15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전국적으로는 25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46명이 사망했다. 김현석기자